

소리 풍경 다시 듣기: “복합 청각주의”의 실현 가능성 연구*

권 현 석
(한양대학교)

I. 들어가며

소리 풍경이란 알려진 대로 보는 풍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청각 환경의 총체를 뜻한다.¹⁾ 캐나다 출신 작곡가 머레이 셰이퍼(Murray Schafer)는 이 개념을 주창하며 음악을 넘어서는 청각 환경을 지향하는 “소리 풍경의 사상”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크게 음악적인 것과 환경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소리 풍경의 관점에서 셰이퍼는 먼저 조직화된 소리를 음악으로 보는 협의의 음악관이 아닌 청각 환경을 하나의 음악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음악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청각 환경의 개선(acoustic design)이 실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소리 풍경의 사상에 기반하여 소리 환경 연구자들은 오늘날 소리 환경의 다양한 문제를 탐구한다. 관련 문제로는 소리 환경의 요소, “듣는 주체”(listening subject)의 정체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소리 환경과 주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이슈가 있다. 이러한 소리 풍경에 대한 탐구는 향후 소리 연구(sound studies)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8037080).

1) Murray Schafer, 『소리 교육 1』(*A Sound Education: 100 Exercises in Listening and Soundmaking*), 한명호 역 (홍성: 그물코, 2013), 5 참조.

기반이 되는 가운데 소리 풍경을 체험시키는 실천적 접근인 소리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리 풍경 연구자들은 때때로 음악 교육의 현장에서 기존 음악 교육과 다른 철학과 방법으로 소리 교육을 실시한다. 예컨대, 그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소리 체험을 중시하며, 소리 산책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소리 교육은 주로 초·중등 수준에서 음악 공사 전 영역에서 실시된다. 한편, 대학 음악학 교육의 현장에서는 국내외 불문하고, 소리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극 수행된다. 그러나 음악의 개념과 접근법이 점차 확장되는 최근의 과정에서 음악학계에 소리 풍경의 관점이 소개된 이래 대학 음악학 영역에 소리 연구가 대안적인 하위 음악학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한 가운데 대학의 장에서 소리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소리 교육의 필요성이 서서히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리 교육은 참여자에게 소리에 대한 흥미를 쉽게 유발시켜 21세기 소리 주체와 환경의 전반적 양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사색하도록 유도한다. 예컨대, 오늘날 주변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은 때때로 소음 제거 이어폰을 끼며 주변 소리 환경을 차단한다. 그 순간 해당 주체와 환경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한편,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형태의 백색 소음은 부지불식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스마트족(族)은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환경음을 창출하거나 조합한다. 결국 소리 교육은 참여자가 오늘날의 소리 주체와 환경이 어떻게 개별 혹은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대학에서 실시되는 소리 교육은 현대 소리 연구의 이론적 접근법을 적절히 보완한다. 현대의 소리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소리에 대한 개념적 지각과 신체적 감각이 다 필요하다. 소리 교육은 근현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참여자의 신체적 청각을 환기시켜 이들이 주변 소리 환경을 조감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중등 수준을 넘어 대학에서까지 소리 교육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소리 교육의 장에서 총체적으로 필요한 철학에 관한 문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소리 청취 교육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점차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탐구는 소리 연구의 기타 세부 연구와 비교할 때 그 성과가 적다. 그러나 이 연구는 셰이퍼의 소리 풍경의 사상에 입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리 교육 혹은 그 함의에 관한 연구 위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먼저 텅클(Adam Tinkle)은 소리의 청취 교육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지만, 그 바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²⁾ 하나는 참여자에게 소리 청취를 위임해야 한다는 청취자 중심의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소리 환경을 구성하는 악음에 대한 보수적 입장이다. 그는 소리 청취를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행위로 고려하며 소리 환경에서 울리는 서양 음악 혹은 서양 음악적 조합은 청취해야 할 소리 환경의 요소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다양한 교육적 입장이 내포된 자신의 “소리교육학”(sound pedagogy)에 뿌리를 둔다. 텅클은 소리교육학을 서양 예술 음악을 중심으로 다루는 기존의 “음악 교육”(music education)을 기본 철학 및 방법론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교육으로 제시한다.³⁾ 그에 따르면, 음악 교육의 장에서는 서양 예술 음악에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며 이러한 음악이 (유럽) 문화적으로 특수한 “음악 감상”(music appreciation)의 과정을 통해 접근된다. 이에 반해 소리 교육학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며 이러한 소리가 보편적인 소리 청취의 과정을 거쳐 이해된다.

한편 위모넨(Heikki Uimonen)은 소리 청취 교육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텅클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시사한다.⁴⁾ 하나는 청취자 중심의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소리 환경을 이루는 악음에 대한 개방적 입장이다. 위모넨은 소리 청취를 문화적으로 특수한 행위로 이해하며 소리 교육에서 서양 음악 혹은 관련 조합을 배제해야 할 청취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청취 교육을 이러한 두 가지 관점

2) Adam Tinkle, “Sound Pedagogy: Teaching listening since Cage,” *Organised Sound* 20/2 (2015), 222-230.

3) 본 논문은 음악 교육(music education)을 서양 예술 음악 중심의 교육으로 한정해서 사용한다.

4) Heikki Uimonen, “Everyday Sounds Revealed: Acoustic Communication and Environmental Recordings,” *Organised Sound* 16/3 (2011), 256-263.

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음악 교육에 대한 완화된 입장에서 소리 교육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성인 대학생 및 교사가 특정한 지침에 따라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는 소리 산책”(recorded soundwalk), 그 접근법에 기반하는 자신의 파일럿 연구를 통해 위모넨은 참여자들이 소리의 이해가 보편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다수의 학생들이 지나는 서양음악의 교육 배경 등의 요소가 개입하는 주관적인 절차로 이해한다.

두 연구 모두 소리 교육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참여자에게 다양한 소리에 나름의 음악적 가치를 부여하는 확장된 음악관을 직·간접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오늘날 국내외를 불문하고, 소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복잡한 오늘날의 음악 문화를 이해·진단하는 데 있다고 전제할 때, 두 연구의 소리 청취 교육관과 관련해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첫 번째는 소리 환경의 어떠한 소리적 요소들을 듣도록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리 교육의 지침 중 하나가 참여자들이 소리 환경을 전관(全觀)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할 때, 텅클의 연구는 21세기 소리 환경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서양 음악의 요소를 적극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는 소리 교육 현장의 일각에서 환경음들이 만들어내는 조직화된 소리나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이 간과되고 있다.

두 번째는 소리 환경의 개선 교육을 위한 청취 관련 문제이다. 물론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가 소리 교육의 몫은 아니다. 그러나 소리 교육의 최종 목표가 쾌적한 소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데 있다고 이해할 때, 소리 교육은 참여자에게 소리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떻게 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점이 두 연구에서 다 적극 언급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소리 교육을 할 때 어떠한 현대의 소리 공간에서 소리를 듣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리 공간의 선택의 문제는 결국 해당 소리 공간에서 어떠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그러나 두 연구

가 살펴보는 소리 교육의 장을 포함한 다수의 현장에서 때때로 이러한 점이 중점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소리, 환경,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폭넓은 청취 방법에 기반하는 21세기 통합적인 소리 청취 교육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어떠한 구체적 배경에서 소리 풍경에 대한 음악학계 안팎의 관심이 지속되어 오늘날 소리 청취 교육이 요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통합적인 소리 청취 교육 철학의 하나로서 “복합 청각주의”(compound auditorism)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합 청각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 공항 소리 환경의 사례 연구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II. 소리 풍경에 대한 관심: “청각 중심주의”의 첫 걸음

음악학계 안팎에서 소리 풍경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꾸준히 요청되고 있는 “전신(全身) 감각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선이다.⁵⁾ 전신 감각주의란 인간의 전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시각은 근대 이후 여전히 사회의 많은 부문을 지배하는 “시각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형성되고 있다. 마셜 맥루한(McLuhan, Marshall, 1911-1980)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근대 사람들이 세상을 주로 “시각”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각을 선형적, 파편적, 인과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⁶⁾

시각 중심적 사고는 오늘날에도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근현대 음악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시각 중심적 사고는 “연주되는 음

5) 토리코에 게이코(鳥越 けい子)는 소리 풍경의 사상에 근대 서양 문명 속에서 구분된 모든 제도를 통합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鳥越 けい子, 『소리의 재발견: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サウンドスケープ—その思想と実践), 한명호 역 (홍성: 그물코, 2015), 21-22.

6)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en), 김상호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참조.

악”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예컨대, 연주가가 특정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음악은 특정한 공간의 상황과 연주자의 내면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표출되고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학은 많은 경우, 해당 음악을 연주할 때 “들리는 연주”보다는 “보이는 악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취한다. 즉 음악학은 연주되는 음악의 실재를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이 이어져 왔다. 그러한 가운데, 연주 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연주 연구(performance studies)와 생동하는 청각 환경에 집중하는 소리 풍경 연구가 일종의 대안으로 고려되어 왔다.

요컨대,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소리 풍境的의 연구자들의 지향하는 청각 중심주의는 음악을 인식하는 데 주로 동원된 “시각”의 한계를 반성하고, 균형적인 전신 감각주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택되는 사상적 디딤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각 중심적 사고는 후술할 바와 같이 현대 시민 사회에서 소리, 환경, 공간 내의 이동 과정이 새롭게 성찰되는 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1. 탈(脫) 악음주의

소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주요 단면은 근대의 “악음”(musical sound)을 벗어나려는 “탈(脫) 악음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⁸⁾ 음악계의 경우,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초부터 작곡가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났다. 에릭 사티(Erik Satie, 1866-1925)의 《가구 음악》(*Musique d'meublement*,

7) 찰스 카일(Charles Keil)은 연주자가 연주의 현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주가 그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지는 상황을 “참여적 어긋남”(participatory discrepancies)으로 개념화한다. Charles Keil, “Participatory Discrepancies and the Power of Music,” *Cultural Anthropology* 2/3 (1987), 275-283.

8) 20세기 초부터 서양음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악과 환경음 혹은 소음 간의 경계 붕괴 과정을 다음의 저서 및 논문에서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김경화, “노이즈의 역설,” 『음악논단』 38 (2017), 153-160; 鳥越 けい子, 『소리의 재발견: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35-40.

1917, 1920, 1923)은 음악을 가구처럼 일상의 일부를 이루도록 만든 반복되는 음악이다. 이러한 음악을 통해 그는 근대의 악음 중심주의에 던지시 이익을 제기했다. 루솔로(Luigi Russolo, 1885-1947)는 다양한 도시 소음을 그대로 작품에 쓰거나 스스로 제작한 노이즈 오르간(intonarumori)으로 1914년에 밀라노에서 첫 연주회를 열었다. 이러한 성과는 2차 대전 이후 실험적인 구체음악으로 이어졌다. 구체음악의 선구자 피에르 셰페르(Pierre Schaeffer, 1910-1995)는 다양한 환경음을 녹음한 뒤, 그것을 기계로 조작하여 비악음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활용했다. 악음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려는 이러한 정신은 존 케이지의 아방가르드 음악의 사고로 도약한다. 알려진 대로,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는 《4분 33초》(1952)에서 환경음 그 자체가 작품을 이루도록 하면서 서양 근대 음악의 근간인 악음 중심적 사고에 파격적으로 도전했다. 그러면서 소리 풍경 사상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을 제공했다. 이러한 케이지의 도전은 오늘날 다양한 실험 음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종합하면, 일련의 시도는 관습적인 “악음”을 벗어나 근원적인 “소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존 케이지의 문제작은 음악의 개념을 직업 음악인의 악음에서 현대 사회의 시민 관객이 접근가능한 소리로 바꾸려는 행보로 이해할 수 있다.

학계의 경우 탈악음주의는 특히 음악인류학계에서 비서구 음악계의 확장된 음악관의 영향 아래 적극 실천되고 있다. 여기서 확장된 음악관은 악음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소리도 음악으로 적극 고려하는 비서구권 음악계의 관점을 뜻한다. 이러한 음악관은 20세기 이전부터 비교 음악 연구를 통해 알려지다가 1960년대 이후 인류학적 접근법으로 비서구 음악을 탐구하는 연구를 통해 두드러지게 소개되었고, 변함없이 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스티븐 펠드(Steven Feld)가 수행한, 파푸아 뉴기니의 칼루리(Kaluli)족 음악에 대한 음향지각론적 연구(acoustemology)다.⁹⁾ 이 연구에 따르면, 칼루리족에게 자연은 하나의 오케스트라다. 이들

9) Steven Feld, *Sound and Sentiment: Birds, Weeping, Poetics, and Song in Laluli Expression*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겹치는 소리들”이다. 따라서 칼루리족의 경우, 두 사람이 노래할 때, 자연의 방식과 유사하게 소리가 겹치도록 노래한다. 1960년대 이후 비서구 음악의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이러한 비서구권의 확장된 음악관은 음악학계의 한편에서 확장된 음악 주체로서의 현대 시민이 접근가능한 소리 풍경에 관심 갖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시민 환경주의

음악학계의 소리 풍경에 대한 관심은 현대의 환경 문제를 성찰하는 시민 환경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환경 문제는 인류의 오랜 관심사이지만, 현대의 환경 이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회복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그 지구의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국제 협약 및 국내 환경 운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음악학계에서 나타나는 소리 “환경”에 대한 성찰은 자신이 창립한 “세계 소리 풍경 프로젝트”(World Soundscape Project)를 통해 표출된 셰이퍼의 환경 지향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폭넓게 보면, 그의 관점은 1960-70년대 미국에서 확산되어 세계 이슈가 되었던 시민 환경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시민 환경주의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환경 운동의 사상적 원동력이다. 관점에 따라서 역사적 범위가 달라지지만, 좁은 의미의 시민 환경주의의 경우, 1960년대 미국의 민간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일어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성찰에서 그 뿌리가 발견된다. 예컨대, 1960년대 살충제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1907-1964)의 서적 『침묵의 봄』(*Silent Spring*, 1962)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 집단 지식이 확장되었고, 지배 체제의 문화에 저항하며 인권과 자유를 외쳤던 청년들의 반(反)문화 운동을 통해 시민 주체 의식이 강화되었고¹⁰⁾,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참조.

10) David Pepper, 『현대환경론: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 민중론적 이해』(*The*

여가 장소의 범위가 교외로 본격 확대되면서 시민의 삶 공간이 확대되었다.¹¹⁾ 이러한 배경에서 20세기의 환경 캠페인이 추구했던 “자연 보호주의”와 구별되는 “삶의 질”을 지향하는 사상이 형성되었고, 이 사상은 시민 환경주의의 토대가 되었다.¹²⁾ 세이퍼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식인의 환경 담론, 그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소음 공해”의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 소리 환경 연구의 사상적 원동력은 세이퍼를 통해 표출된 민간의 환경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3. 청각 유목주의

소리 풍경에 대한 관심은 이동하는 현대의 흐름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청각 유목주의”의 연장선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목주의는 이동을 중시하는 현대의 사고, 즉 발전된 기술의 영향 아래 현대 사회의 시민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방(local), 지역(regional), 지구(global)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¹³⁾ 청각 유목주의는 이러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이명우·오구균·김태경 공역 (서울: 한길사, 1989), 36 참조.

- 11) 심인보, “미국의 현대 환경주의의 등장,” 『동국사학』 45 (2013), 422; Samuel Hays, *Beauty, Health, and Permanence: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1955-1985*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15.
- 12) Hays, *Beauty, Health, and Permanence: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1955-1985*, 26-27.
- 13) 유목주의는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는 현대 사회의 유목주의를 현대의 유목민이 소속된 영토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탈영토화 과정으로 고려한다.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Nomadology: The War Machine*, trans. Brian Massumi (New York: Semiotext(e), 1986), 52 참조. 한편 유목주의는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 접근된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본국을 벗어나려는 관광객을 통해 유목주의의 흥미로운 이해를 돕는다. Zygmunt Bauman, *Postmodern Eth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241 참조. 미그한 모리스(Meaghan Morris)는 진정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의 모텔을 통해서 유목주의를 신선하게 탐구한다. Meaghan Morris, “At Henry Parkes Motel,” *Cultural Studies* 2 (1988), 5 참조.

한 방식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때때로 청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하려는 관점이다. 이러한 청각 유목주의는 살펴보면, 현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예컨대, 우리는 이동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자주 듣거나 정주하고 있을 때 놓치는 주변 자연 소리를 곧잘 듣는다. 이러한 청취는 단순히 소일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무(無) 생산 활동 혹은 능동적인 반(反)활동(anti-activity)이기도 하다.¹⁴⁾ 과거에 비해 이동의 과정이 잦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자주 반활동을 한다. 이렇게 반활동을 할 때, 우리들은 가능한 한 전(全) 감각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 그 동안 “시각”에 비해 덜 활용되어 온 청각을 만족시키려 한다. 즉 오늘날 사람들의 음악 청취 혹은 소리 듣기는 사람들이 현대의 이동 흐름에 적극 부응하는 현대 시민의 청각적 행보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소리 풍경에 대한 관심은 전신 감각주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청각 중심적 사고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청각 중심주의는 음악학계 안팎의 탈악음주의, 시민 환경주의, 청각 유목주의로 구분된다. 소리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제 소리 산책 등의 방법을 통해 소리 풍경을 체험시키는 소리 교육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소리 풍경에 대한 이목이 청각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쏠리는 관심이라면, 소리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소리 교육을 통해 현대 시민이 그 관점을 구현하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리 교육의 장에서는 그러한 목표 아래 어떠한 구체적인 청취 교육 철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III. 소리 청취 교육 철학의 모색: “복합 청각주의”의 검토

청각 중심적 사고의 구현이라는 현대 소리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소리

14) 존 어리(John Urry)는 반활동을 이동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꼽는다. John Urry, 『모빌리티』(*Mobilities*), 강현수·이희상 공역 (서울: 아가넷, 2014), 39.

청취 교육 철학의 주요 측면은 “복합 청각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살펴보면, 참여자가 경험하는 소리, 환경, 공간 내의 이동 동향은 이중적이다. 악음과 소음 등의 수많은 소리들은 기존 관습에 따라 부여되는 음악적 가치의 측면에서 확연히 대조된다. 한편 참여자는 환경에 분리되면서 동시에 포함된다. 또 이동의 흐름은 출발점과 도착점의 양지점을 향하고 있다. “복합 청각주의”란 참여자가 이러한 이중적인 소리, 환경, 공간적 양상에 동시 듣기(simultaneous listening)으로 부응하도록 해 이들을 현대 소리 환경의 주체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은 각 양상에 대한 동시 듣기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요소적 청취관

소리적 양상에서 부응하는 “요소적 청취”(componential listening)는 참여자가 관습적 음악 가치의 측면에서 대조되는 악음과 비악음을 동등하게 동시에 듣는 청취를 말한다. 따라서 요소적 청취관은 탈음악주의 기반의 교육관이다. 즉 이 시각은 참여자가 “요소적 청취”를 통해 소리적 주체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여기서 소리적 주체란 직업 음악인과 음악 마니아 등의 협의의 음악적 주체를 넘어서는 확장된 음악 행위를 적극 수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소리적 주체는 소리를 적극 창출, 향유, 판단하는 사람 혹은 사물을 말한다. 소리 환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소리 주체가 곳곳에 존재한다. 이들은 다양한 악음과 비악음을 때때로 창출, 향유, 진단한다.

요소적 청취의 입장은 두 가지 관점과 흥미롭게 비교된다. 하나는 악음에 대한 보수적 입장이다. 이 시각은 소리 교육을 통해 음악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어 주변으로 내몰리는 비악음이 새롭게 조명되어 악음 우위의 위계질서가 잠재적으로 재구성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 입장은 소리 환경에서 울리는 서양 음악을 소리 교육의 소재로 적극 고려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러한 관점에 반대되는 개방적 입장이다. 예컨대 세이퍼는 음악적 위계질서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그러나 소리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 내는 서양 음악적 조합은 흥미로운 교육의 소재로 이해한다. 한편 그는 소음을 유해한 청각 요소로 이해하며 소음에 음악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요소적 청취 중심주의는 먼저 전자의 입장과 달리, 가능한 다양한 청각적 요소를 수용하며 서양 음악 혹은 서양 음악적 조합을 소리 환경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적극 고려한다. 어느 소리 환경이든지 서양 음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거리의 라이브 연주를 통해서든 카페의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든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서양 음악적 어법을 활용한 음악이 나온다. 주변부에 존재하는 소리를 조명하기 위해 이러한 음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소리 풍경의 상당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요소적 청취관은 후자의 관점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음과 비악음에 나름의 음악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면서 요소적 청취의 입장에서는 두 입장이 간과하는 세계 여러 지역의 악음도 소리 환경의 요소로 적극 포함된다.

요소적 청취관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날 소리 교육의 현장에서 요청된다. 첫째, 현대 소리 환경에서 비악음이 계속 다양화되고 있다. 이 풍경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발전된 기술의 영향 아래 자연의 바람부터 스마트폰에 이르는 다양한 발음체가 저마다의 독특한 환경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람 또한 하나의 발음체로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발음체와 참여자는 공전의 방식으로, 그리고 때때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작용한다. 어떤 면에서 소음도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소음은 모든 소리 환경 곳곳에 존재한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 객관적 합의를 받는 소음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음도 특별한 필터가 있다면 음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더불어 현시점의 소리 교육의 목표는 청각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악음에 의식적으로 음악적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이 요청된다.¹⁵⁾ 둘째, 오늘날 소리 환경에는 특정 지방의 소리만

15) 요소적 청취관은 비인간(non-human) 발음체의 존재를 적극 인정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휴먼 시대의 탈(脫) 인간 중심적 교육관과 맥이 통한다. 이러한 교육관을 대학 음악 교양 교육의 장에서 소리 풍경의 틀 안에서 새롭게 실천하려는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신혜승, “음악에서의 포스트휴먼 담론과 음악교양교육에의 적용,” 『음악학』 32 (2017), 153-176.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준, 예컨대, 지역, 지구 수준의 소리도 존재한다. 각 소리의 비중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소리를 적극 파악할 때, 현대 소리 환경의 총체적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2. 층위적 청취관

“층위적 청취”는 환경의 양상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청취로서 참여자가 소리 환경의 층위가 다른 “비잔향”(non-reverberation)과 “잔향”(reverberation)을 동시에 듣는 청취를 말한다. 따라서 층위적 청취관은 시민 환경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교육관으로 교육적 참여자가 층위적 청취를 통해 환경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환경적 주체는 청취자가 청각 환경에서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 개체이면서 동시에 그 일부로 포함되는 구성 요소라는 점을 지각하고 청취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리 환경의 층위는 크게 표면과 심층으로 나눌 수 있다. 표면에는 비잔향이 존재한다. 이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리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울림에 비해 소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울림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개념에는 잔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다양한 형태의 소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소리는 크게 발음체의 실체나 내용이 비교적 분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1-2초간 울리는 기계 신호음과 특정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4-5분간의 음악 소리가 포함된다. 셰이퍼가 말하는 신호음(signal sound)과 표식음(soundmark)도 이 범주 아래 분류될 수 있다. 후자의 소리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외국어 소리, 실체나 내용이 모호한 다양한 소리들이 있다. 한편 소리 환경의 심층적 영역에는 잔향이 있다. 잔향은 비잔향이 공간 속에서 뒤섞이며 지속적으로 울리는 상대적으로 긴 울림을 말한다. 셰이퍼가 제시하는 기조음(keynote sound), 메아리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소 간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조적인 울림을 청취자는 각각 다른 수준으로 몰입(immersion)해서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소리의 층위에 감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몰입을 말하며, 심도 있는 해석을 위한 몰입이 아니다. 어느 정도로 이러한 몰입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표면적 울림은 전자의 수준, 심층적 영역은 후자의 정도에서 들리는 소리다. 청취자에게 비잔향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몰입해도, 즉 “소리 환경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들린다. 반면, 잔향은 상대적으로 깊게 몰입할 때, 즉 “소리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들린다. 그러한 주의가 없기에 우리는 평소의 소리 환경에서 울리는 기조음과 메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몰입은 그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낮은 수준으로 몰입할 때, 우리는 소리 환경에서 어느 정도 분리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포함된다. 그러한 각각의 과정에서 청취자는 독립적 개체로,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들여다보면, 현대 사회의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리는 이러한 주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층위적 청취란 참여자가 지속성과 몰입도 측면에서 구분되는 소리 환경의 대조적인 울림을 동시에 듣는 청취이며, 그래서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돕는 듣기이다. 층위적 청취관은 말 그대로 참여자에게 이러한 청취 기회를 제공해 이중적 모습의 환경적 주체로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층위적 청취관의 주요 이슈, 소리 환경의 층위, 각 층위의 소리에 접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몰입의 정도, 이에 따라 소리 환경에 청취자가 포함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소리 풍경 듣기와 콘서트 홀의 음악 감상이 청취의 내용은 다르지만, 청취 방식의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관련 연구는 청취자가 개별 주체로서 소리 환경을 청취하는 과정(만)을 강조한다. 알란 리흐트(Alan Licht)는 소리 풍경 듣기의 실천적 근거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통해 특정 음악의 ‘음악’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가 작곡가에서 청취자로 재이양되었다고 역설하며¹⁶⁾, 소리 풍경 듣기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여기서 판단

은 개별 주체로서 하는 판단이다.

그러나 층위적 청취는 콘서트 홀 음악 듣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절차이다. 전술한 대로, 소리 환경에서 청취자들은 (이상적으로는) 그 표면과 심층을 다 듣는다. 반면, 콘서트 홀에서 관객들은 표면적 청취를 주로 한다. 즉 이들은 낮은 수준으로 감각적으로 몰입하며 소리 환경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때문에 음악 그 자체(만) 잘 들린다. 바꾸어 말하면, 콘서트 홀 관객들은 소리 환경의 심층에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지 않기에, 즉 소리 환경에 적극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경음이 들리지 않는다.

층위적 청취관은 청각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긴요하다. 환경의 문제는 자신이 환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적극 논의된다. 참여자는 층위적 청취를 통해서 무엇보다 높은 수준으로 몰입해 진향을 청취하며 소리 환경의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층위적 청취관은 참여자를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현대의 소리 환경에 시민 환경주의가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3. 방향적 청취관

이동의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적 청취는 참여자가 소리 환경의 양방향의 울림을 동시에 듣는 청취를 의미한다. 그래서 방향적 청취관은 참여자에게 그러한 청취의 시간을 마련해 참여자를 이동의 주체로 유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동의 주체는 말 그대로 이동의 방향을 인지하며 적극 움직이는 주체를 의미한다.

방향적 청취관이 요청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내면에 양가적 감정이 미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우리가 출발점을 떠나 목적지로 향할 때 생기는 복합적인 감정을 말한다. 예컨대, 목적지에 대한 설렘과 출발지에 대한 그리움이 이러한 감정에 해당한다.¹⁷⁾ 물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쪽 감정이 더 강

16) Alan Licht, *Sound Art: Beyond Music, Between Categories* (New York: Rizzoli, 2007), 12.

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동하는 사람의 인식을 살펴 보면, 어느 한 방향으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출발지와 목적지 양쪽 모두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 지점에 대해 회고하거나 전망하는 등의 사색을 하며, 그 다음 취해야 할 또 다른 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경우 진정한 의미의 이동의 주체로서 의식적으로 이동하거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자에게 각 지점에 존재하는 소리를 동시에 듣는 방향적 청취의 기회를 제공하면, 그러한 양방향적 인식이 어느 정도 촉진되어 참여자를 사색의 과정으로 이끌 수 있다. 소리 교육을 위한 소리 산책의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양방향적 인식이 확대되면, 각 지점의 공간적 위치의 의미는 더욱 심화되고 추상화되어, 이동에 대한 사색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방향적 청취관은 참여자에게 이러한 사색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한다. 복합 청각주의의 세 가지 관점 및 각 관점별 동시 청취 대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복합 청각주의”의 세 가지 관점

	요소적 청취관	층위적 청취관	방향적 청취관
사상적 근거	탈악음주의	시민 환경주의	청각 유목주의
동시 청취의	악음 (세계 악음)	비(非)잔향	출발점의 소리
대상	비악음 (환경음)	잔향	도착점의 소리

17) 이동하는 행인의 양가적 감정을 이해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권현석, “인식의 “모빌리티”의 이론과 실제: <강남스타일>의 패러디 하위문화 분석을 근거로,” 『음악과 문화』 34 (2016), 10-11 참조.

IV. 복합 청각주의의 실현 가능성 탐구

1. 사례 연구의 주요 방법론: 기록하는 소리 산책

소리 산책은 교육자가 제시하는 진행상의 규칙에 따라 참여자가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걸기다. 소리 산책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점에서 무규칙 아래 소리를 경험하는 듣는 걸기(listening walk)와 구분된다. 세이퍼는 소리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귀 세척(ear cleaning), 소리 풍경 여행(soundscape tourist)과 더불어 이 방법을 제시한다.¹⁸⁾ 귀 세척은 의식적인 청취로 주변의 소리를 섬세하게 듣게 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실시하는 일종의 연습 청취다.¹⁹⁾ 소리 산책은 이동의 과정을 한다는 점에서 이동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귀 세척과 다르다. 소리 풍경 여행은 말 그대로 새로운 공간을 여행하듯 소리 풍경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행위다. 듣는 걸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의 여부가 소리 산책과 소리 풍경 여행을 구분 짓는다.

소리 산책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교육 방법이다. 소리 산책을 통해 참여자는 소리 풍경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걸기가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형태인 데서 오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것은 이동과 청취가 연관되어 있기에 지속적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이동과 청취의 상관성을 흥미롭게 살리는 방법이 바로 “기록하는 소리 산책”이다. 이 산책은 소리 풍경 여행과 소리 산책이 결합된 방법으로 여행할 때 인상적인 것을 기록하듯 소리와 느낌을 기록하면서 하는 산책이다. 이 방법을 통해 참여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소리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

18) Schafer,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314-327.

19) 세이퍼는 다음의 저서에서 귀 세척을 위한 다양한 청취 연습 방법을 제공한다. Schafer, 『소리 교육 1』; Murray Schafer, 『소리 교육 2』(*HearSing: 75 Exercises In Listening to Music*), 한명호 역 (홍성: 그물코, 2013).

2. 사례 연구: 인천공항의 소리 환경 체험

복합 청각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참여자가 제시된 산책의 방법으로 특정한 소리 환경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해당 소리 환경에서 참여자가 복합 청각주의를 이끄는 요소적, 층위적, 방향적 청취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주문한 산책의 방법은 소리 여행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실험 구간을 경유하면서 인상적인 소리를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기는 “기록하는 소리 산책”이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소리 환경은 참여자가 그러한 산책을 하도록 본 연구자가 요청한 문제의 공간 환경이다. 전술한 대로, 소리 풍경 체험을 위한 공간 선택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모든 공간이 시대적 흐름을 다 반영하고 있지만, 공간에 따라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고려한 공간은 오늘날의 이동의 흐름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사회적 이동 공간(social movement-space)이다. 이 공간에는 예컨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현대인들이 경유하는 수많은 형태의 ‘역’이 포함된다. 인천공항은 한국에서 가장 이동이 활발하게,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동 공간이다. 또한 이곳은 참여자가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시시각각 여러 방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즉 세 가지 청취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진다.

본 연구자는 2016년 4월, 인천공항 소리 풍경의 이해를 위한 사례 연구를 했다. 이 연구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 23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실험이다.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이 정해진 날에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표 2>에서 제시하는 대로 미리 정한 인천공항 안팎의 실험 구간을 경유한다. 경유할 때, 각자의 스마트폰 메모장에 들리는 소리를 기록하고, 인상적인 소리를 체크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쓴다. 실험 이후,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심층 인터뷰의 시간에 참여한다.

〈표 2〉 인천공항의 소리 환경 연구를 위한 표본 실험의 시간 및 구간

	시간	장소	실험 구간
실내	15:00	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 카운터 A-F
	15:20	여객터미널 4층	한국 문화의 거리
	15:40	여객터미널 2층	밀레니엄홀
실외	15:50	여객터미널 3층	출입구 8-14번
실내	16:00	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 카운터 M-G

3. 사례 연구의 결과: 세 가지 청취의 가능성

인천공항의 사례 연구는 복합 청각주의의 실현 가능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참여자들이 잠재적으로 요소적, 층위적, 방향적 청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각된다.

1) 요소적 청취

먼저, 참여자는 요소적 청취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이들은 인천공항 소리 환경에 비악음과 악음이 고루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했다. 아울러 일부 참여자는 비악음이 때때로 서양 음악적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나타냈다. 이 점은 이들이 소리 환경을 구성하는 악음에 대한 개방적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악음에 나름의 음악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해당 청각적 요소 및 조합은 보통 기존의 청취 방법으로 이들이 인천공항을 경유할 때 쉽게 파악되지 않은 것들이며 본 실험에서 요소적 청취로 어느 정도 인지된 청각적 대상이다. A학생은 심층 인터뷰에서 소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전에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여러 소음 성분들을 듣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소음성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여기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도 청각에 집중하게 되면 이전엔 듣지 못했던 신선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A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작곡과 소속의 B학생, C학생은 인천 공항 소리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서양 음악적 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풍경의 일부였던 내가 모든 사람들의 관찰자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주선율, 발소리 같은 것이 효과음, 공기 소리가 베이스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B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소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변 소리들에 집중해 보니 오히려 그것 나름대로 흥미로웠습니다.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이나 바퀴소리에서도 음악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신선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음악도 제가 듣기 싫은 순간이면 소음으로 변하고 마는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안 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C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2) 층위적 청취

전반적으로 본 실험 참여자는 인천공항 소리 환경의 표면 및 심층 영역에 존재하는 비잔향과 잔향을 동시에 들으며 각 소리가 적절한 지 그렇지 않은 지 나름의 기준에 따라 진단하는 층위적 청취의 주요 측면을 어느 정도 보인다. 이러한 청취는 평소 인천공항을 경유할 때 참여자가 취하는 기존의 청취와는 크게 대조된다. 여기서 기존의 청취란 비잔향을 많은 경우 듣지 않고, 각 소리의 적절성 여부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청취를 말한다. D학생은 본 공항의 잔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시간 공항의 소리를 들으며, 공항에 오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소리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넓은 공간 때문에 물리적인 마찰 소리가 아니어도 이명감이 커서 피곤했습니다. 공항 내 귀를 쉴 곳이 없으므로 외부 공간으로 나갔을 때 소리에서 해방된 느낌에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D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비잔향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소리와 관련 기기가 개선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11명의 참여자는 안내방송의 소리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소리가 정보 전달의 기능의 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즉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학생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안내방송이 웅얼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분별하게 쓰이는 안내 방송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때문에 좀 더 중요한 방송을 또렷하게 하는 식의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E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동시에 7명의 학생이 인천공항의 소리 환경 내의 한국 음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한국 음악이 음악 소리의 공간적 기능의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리 혹은 음악과 공간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해당 참여자들은 인천공항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항이기에 이 공간에서 한국 혹은 한국적인 특징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음악이 (더) 나와야 한다고 보았다. F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문화의 거리에서는 좀 더 국악적인 노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거리의 “왕가의 산책”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악적인 노래가 인천공항에 나와서 외국인이나 출국, 입국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들려주면 국악이 좀 더 귀에 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F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6명의 참여자는 인천공항의 소리 환경이 비잔향의 음악을 전달하는 음향 기기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3) 방향적 청취

실험 구간에서 일부 참여자는 자신이 추상적으로 고려하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울림에 어느 정도 고루 주목하는 잠재적인 방향적 청취를 행한다.

이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다양한 감정을 언급하는 가운데, 특정 구간의 소리 환경에서 안정감, 떠나고 싶은 마음, 혹은 삭막한 느낌을 느꼈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답변은 심각한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공간의 울림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은 때때로 존재론적 입장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감정은 특정한 소리 환경에서 일어난 참여자 자신의 추상적인 출발점, 도착점, 혹은 또 다른 지점에 대한 느낌이다. 이러한 느낌은 경우에 따라 향후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고민은 해당 참여자가 여러 지점의 소리를 적극 추구하는 방향적 청취를 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방향적 청취는 흔히 인천공항을 경유할 때 취하는 기존의 청취와는 흥미롭게 대조된다. 즉 기존 청취의 과정에서는 양방향에 존재하는 발음체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덜 고려된다. 여객터미널 3층에서 4층에 있는 “한국 문화의 거리”로 진입한 후 G학생, H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안정감을 언급했다.

“천장이 낮아져 멍한 느낌에서 벗어났습니다. 울림이 없어지니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G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들어가자마자 조용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H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실외의 출입구 8~14를 걷는 동안, I학생은 삭막함을, J학생은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외부공간까지 음악을 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음악이 없어 매우 삭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I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가장 소음이 난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끄럽기는 했지만 소리를 들으며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J학생, 인터뷰, 2016년 4월)

V. 나가면서

청각 중심주의는 근대에서 태동되어 오늘날 지향되는 관점, 전신 감각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적 디딤돌이다. 소리 풍경은 현대 시민이 청각 중심적 사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함없이 탐구되고 있다. 그리고 소리 풍경을 체험시키는 소리 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상에서는 21세기 소리 청취 교육관이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은 복합 청각주의를 하나의 관점으로 제시한다. 복합 청각주의는 참여자로 하여금 현대 소리, 환경, 이동의 복합적 양상에 요소적 청취, 층위적 청취, 방향적 청취로 대응하게 해 이들을 소리, 환경, 이동의 주체로 유도한다. 인천공항의 사례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청취의 잠재성의 일단을 보여준다.²⁰⁾ 세 가지 형태의 동시 듣기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청각은 강화되고, 심화되고, 확대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21세기 소리 환경을 섬세하게 이해해 궁극적으로는 전신 감각주의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지도 모른다. 현시점의 소리 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소리들이 공전의 방식으로 등장하고 사라지며 역동적인 21세기의 흐름을 흥미롭게 반영한다. 그러한 점에서 복합 청각주의는 참여자들이 소리 풍경 체험을 통해 현대의 한 단면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시대적 소리 청취 교육관으로 볼 수 있다.

한글검색어: 사운드스케이프, 소리 환경, 청각, 청취, 이동, 복합 청각주의, 요소적 청취, 층위적 청취, 방향적 청취, 인천공항

영문검색어: Soundscape, Sound Environment, Hearing, Listening, Movement, Compound Auditorism, Componential Listening, Stratal Listening, Directional Listen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20) 인천공항의 소리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소리들을 행인들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는 본 연구를 새롭게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 주제이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현석. “인식의 “모빌리티”의 이론과 실제: <강남스타일>의 패러디 하위 문화 분석을 근거로.” 『음악과 문화』 34 (2016): 5-33.
- 김경화. “노이즈의 역설.” 『음악논단』 38 (2017): 149-179.
- 신혜승. “음악에서의 포스트휴먼 담론과 음악교양교육에의 적용.” 『음악학』 32 (2017): 153-176.
- 심인보. “미국의 현대 환경주의의 등장.” 『동국사학』 45 (2013): 417-445.
- Bauman, Zygmunt. *Postmodern Eth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Nomadology: The War Machine*. Translated by Brian Massumi. New York: Semiotext(e), 1986.
- Feld, Steven. *Sound and Sentiment: Birds, Weeping, Poetics, and Song in Laluli Expression*.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 Hays, Samuel. *Beauty, Health, and Permanence: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1955-1985*.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Keil, Charles. “Participatory Discrepancies and the Power of Music.” *Cultural Anthropology* 2/3 (1987): 275-283.
- Licht, Alan. *Sound Art: Beyond Music, Between Categories*. New York: Rizzoli, 2007.
- McLuhan, Marshall.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김상호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Morris, Meaghan. “At Henry Parkes Motel.” *Cultural Studies* 2 (1988): 1-47.

- Pepper, David. 『현대환경론: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 민중론적 이해』(*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이명우·오구균·김태경 공역. 서울: 한길사, 1989.
- Schafer, Murray. 『소리 교육 1』(*A Sound Education: 100 Exercises in Listening and Soundmaking*). 한명호 역. 홍성: 그물코, 2013.
- _____. 『소리 교육 2』(*HearSing: 75 Exercises in Listening to Music*). 한명호 역. 홍성: 그물코, 2013.
- _____.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Soundscape: The Tuning of the World*). 한명호·오양기 공역. 홍성: 그물코, 2008.
- Tinkle, Adam. “Sound Pedagogy: Teaching Listening since Cage.” *Organised Sound* 20/2 (2015): 222-230.
- Uimonen, Heikki. “Everyday Sounds Revealed: Acoustic Communication and Environmental Recordings.” *Organised Sound* 16/3 (2011): 256-263.
- Urry, John. 『모빌리티』(*Mobilities*). 강현수·이희상 공역. 서울: 아카넷, 2014.
- 鳥越(토리고에), けい子(게이코). 『소리의 재발견: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サウンドスケープ—その思想と実践*). 한명호 역. 홍성: 그물코, 2015.

국문초록

소리 풍경 다시 듣기: “복합 청각주의”의 실현 가능성 연구

권 현 석

음악학계 안팎에서 소리 풍경에 대한 관심이 일어남에 따라 소리 풍경을 체험시키는 소리 교육이 다양한 수준의 음악 교육의 장에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면서 소리 청취 교육에 총체적으로 필요한 철학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소리 연구의 세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진행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21세기 소리 청취 교육관의 하나로서 “복합 청각주의”를 제시하고, 인천 공항 소리 환경 체험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복합 청각주의는 청각 중심적 사고의 실현이라는 현대 소리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소리 청취 교육관이다. 이 관점은 참여자가 오늘날의 이중적인 소리, 환경, 공간적 양상에 “동시 듣기”로 부응하도록 해 이들을 현대 소리 환경의 주체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합 청각적 사고는 동시 듣기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요소적, 층위적, 방향적 청취관으로 구분된다. 인천 공항의 사례 연구는 참여자들이 이러한 청취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줌으로써, 복합 청각주의가 소리 교육 현장에서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는 잠재성의 일단을 선보인다.

Abstract

**Rehearing Soundscape:
A Study of the Practicality of “Compound Auditorism”**

Kwon, Hyunseok

Sound education, which allows participants to experience their surrounding sound environment, is draw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in the area of music education at various levels, according to the mounting interest in “soundscape” from around the circle of musicology. This situation requires a comprehensive educational philosophy for listening to contemporary soundscape and its practicality. Yet existing studies has paid limited attention to this topic.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present what I call “compound auditorism” as one possible philosophy for contemporary sound listening education, and explore its feasibility,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soundscap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mpound auditorism is a view that has a potential to meets the aim of contemporary sound listening education to realize a hearing-centric thought. The perspective emphasizes on leading participants to become subject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It is by helping them to respond to today’s compound sounds, environments, spaces through “simultaneous listening”. Compound auditorism is divided into three views based on “componential listening”, “stratal listening”, and “directional listening”, according to the types of listening. A case study offers one aspect of a potentiality for compound auditorism to

be applied smoothly to the arena of sound education, by raising a possibility for participants to conduct three types of listening to some extent.

[논문투고일: 2018. 02. 28]

[논문심사일: 2018. 03. 09]

[게재확정일: 2018. 03. 20]

K C I